

취약지역 집중 관리로 '안전 광주' 만든다

장마철 대비 재해 위험지구·급경사지 등 600여곳 점검

시, 안전점검 캠페인 전개...재해·사고 행동요령 홍보도

안전성이 떨어지는 건물과 급경사 위험지구, 재해 위험 저수지 등 수백여 곳이 장마철을 앞두고 정비와 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광주시가 장마철을 대비해 풍수해 재난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올해에는 각종 재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그 어느 해보다 강도높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 1일 "오는 12일까지를 안전 강조 주간으로 지정하고, 풍수해 재난에 취약한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저수지, 대규모공사장, 하천, 배수펌프장 등을 점검·정비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만 600여 개소에 이른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자치구 각 부서

소관 분야별로 재난 취약시설의 구조물 안전성, 안전시설 미비, 관리소홀, 자체점검 부실, 매뉴얼 및 지침 미비, 안전수칙 준수 여부, 안전 교육 및 훈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재난위험지구(D·E등급)인 서구 화정동 삼익아파트와 영화아파트, 장미아파트, 무등시장 등 6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자 등과 정기적인 점검(안전 전화통화 등)을 통해 수시 확인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또 급경사 위험지구인 서구 마곡공원과 남구 사직공원, 주월지구, 서동지구, 북구 본촌공단, 광산구 수량지구, 백선지구 등에 대한 정비사업을 서두르고, 재해 위험지구인 동구 소태천과 남계, 북구 장

등, 광산구 연산, 소촌 1 하천과 배수로 등도 집중 정비에 나선다.

광주지역 곳곳에 위치한 재해위험지구지의 정비사업도 강화한다.

시는 D등급인 서구 봉학제와 광산 산막제, 북구 각화제, 삼각제 등의 배수로와 비상수로, 방수로 등을 보강하는 한편 C등급인 광산 황산제, 오운1제, 가야제, 신창제, 가정1제, 오룡제, 광산제, 대야제, 도야제, 북구 효령제, 월산제 등의 침투수 방지 및 단면보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자치구별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갖고 여름철 호우·태풍에 따른 재해와 물놀이 안전사고, 감전사고, 붕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시민 행동요령도 집중 홍보한다.

장성수 광주시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며 "재난 취약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점검해 광주를

■광주 재난 위험 시설

시설명	시설현황	등급
화정 삼익아파트1동	1979년 준공(12층)	D
화정 삼익아파트2동	1979년 준공(12층)	D
화정동 영화아파트1동	1983년 준공(5층)	E
화정동 영화아파트2동	1983년 준공(5층)	D
장미아파트	1981년 준공(5층)	D
무등시장	1978년 준공(2층)	D

■광주재난위험지구

지역	지구명(등급)	지역	지구명(등급)
서구	봉학제(D)	광산	광산제(C)
	산막제(D)		대야제(C)
	황산제(C)		명곡제(C)
	오운1제(C)		도야제(C)
광산	가야제(C)	북구	삼각제(D)
	신창제(C)		월산제(C)
	가정1제(C)		효령제(C)
	오룡제(C)		각화제(D)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lucky@kwangju.co.kr

U대회 조직위 '에픽스 포럼' 국·내외 대학생 참가자 모집

프레젠테이션대회 8월 개최 다음달 25일까지 신청 접수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8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2014 에픽스 포럼(EPIC Forum)'의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인 '에픽스 포럼 프레젠테이션 대회'에 참가할 국·내외 학생을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스포츠, 예술과 문화'를 만나!(Sport meets Art and Culture)라는 주제로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국내외 저명인사와 토대 친구들 앞에서 직접 영어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모전에는 국내외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최소 3명에서 최대 5명 이내의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응시자는 7월 25일까지 참가신청서, 발표자료, 발표모습을 담은 5분에서 7분 이내 동영상 파일 그리고 참가자와 포럼 행사명이 같이 찍힌 사진을 이메일 (epics@kwangju2015.com)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1등 1개 팀(3백만원), 2등 2개 팀(각 2백만원), 3등 2개 팀(각 2백만원)으로 발표에 참가한 전 팀에게 상금과 함께 공동 주최자인 조직위와 UN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OSDP)의 증서를 수여한다.

한편 '에픽스 포럼'은 조직위와 UN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OSDP)이 광주유니버시아드의 비전인 'EPIC(Eco, Peace, IT, Culture)'과 UNOSDP의 가치인 '개발과 평화를 위한 스포츠'를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매년 개최된 다. /채희종기자 chae@

남구, 동년배 상담사로

노인 자살·우울증 예방

광주 남구가 노인들의 자살과 우울증 예방을 위해 동년배(노인) 상담사를 집중 육성한다.

이 사업은 기존 전문가 집단의 상담에서 벗어나 동년배 노인을 활용한 우울 및 자살예방 사업의 일환이다.

'동년배 상담사 육성' 프로그램은 6월부터 8월까지 남구 노인복지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을 이수한 노인들은 오는 12월까지 남구 관내 144개 경로당을 방문, 경로당을 이용하는 또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리평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역할 수행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60명꼴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정이다.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5월 상처 나누는 대구 광주드라마센터가 최근 대구에서 개최한 5·18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 5·18유공자 '오월광주 치유사 진전'에서 유공자 정홍섭씨가 자신의 작품을 대구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광주드라마센터 제공>

광주시, 영업용 차량에 공회전 제한장치 설치 보조금 지급

정차시 엔진 정지·출발시 시동

광주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시내버스, 법인택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1대당 최대 지원 금액은 시내버스 51만원, 택시 41만원, 화물차 45만원이다.

공회전 제한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 시내버스와 택시 기준으로 연료소비량이 10%가량 절감되고 자동차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은 시내버스 17.3%, 택시는 5.6% 저감되고 이산화탄소는 시내버스 17.1%, 택시는 12.5%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손실을 줄이기 위

해 엔진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로 부착 차량이 운행 중 신호대기, 교통정체, 정류장 등에서 정차 시 3~5초 후 자동으로 엔진을 정지시키고, 출발 시 자동으로 엔진이 시동된다.

박기완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기후변화 문제가 지구촌 주요 관심사인 만큼 연료비도 절감하고 대기오염 물질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사업에 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착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광주시 기후변화 대응과(062-613-4341)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영·유아 수족구병 '위생이 최선'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실태조사 6월~10월 기온 높을 때 유행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더위가 시작되면서 고열을 동반한 손과 발, 구강에 수포가 생기는 영·유아 수족구병이 증가함에 따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연중 지역 병·의원의 소아과에 내원 또는 입원하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족구병, 무균성수막염, 포진성 구염염 등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의뢰건수와 검출률이 2월에는 17건 중 8건(47.1%), 3월에는 24건 중 12건(50.0%), 4월에는 21건 중 8건(38.1%)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5월 중에는 45건 중 24건(53.3%)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족구병은 2월 8건, 3월 11건, 4월 8건, 5월 21건으로 지난해와 달리 기온이 낮은 1월부터 4월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한 이후, 5월에 크게 증가했고 전체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실태(62건) 중 90% 정도 차지했다.

또한 검출된 수족구병의 원인병원체

양상도 지난해에는 대부분이 심각한 증상을 초래하는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인데, 반해 올해는 비교적 수족구병 증상이 약하게 일어나는 콕사키 A16형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기온이 상승하는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10월까지 유행한다.

모든 연령층에서 감염이 될 수 있지만 주로 위생관념이 없는 3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한다.

감염경로는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호흡기 분비물(침, 가래, 콧물 등)과 엔테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이나 물, 장난감 등을 통해 경구적으로 전파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정재국 질병조사과장은 "수족구병이나 무균성수막염 등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은 70여 개 이상의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백신이나 특이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며 "예방을 위해서는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아이와 접촉을 피하고,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조언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회사 출·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예향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TEL.062.944.5775 FAX.062.944.599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축석사거리)

두암신협 50억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3.1%**

알찬예탁금 최고 **2.9%**
수시입출금통장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두암신협

본점: 263-0136 (말바우 사거리)
울곡지점: 264-1232 (두암중학교 입구)
첨단지점: 572-9511 (호반아파트 정문 맞은편)